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유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1
----------	------

발의연월일 : 2018. 4. 26.

발의자 : 유화, 이민근, 정승현,
운태천, 김정택, 홍순록, 김동규, 윤석진,
성준모, 박영근, 김동수, 주미희, 박은경,
손관승, 김진희, 유화, 신성철

주 문

- “붙임과 같음”

제안이유

- 2018.3.15. 국토교통부 역명심위원회는 기존 역명인 ‘원곡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원곡역’은 행정구역상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딴 명칭도 아니며, 옛 수인선 운행 시 사용되던 역명으로 현재 안산시민들에게도 익혀진 명칭임.
- ‘원곡역’은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한국 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병원, 은행, 상업 시설 등이 위치하고, 공단근로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안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에 합당한 역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사료됨.
- 이에 안산시의회는 사람들이 쉽게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고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함.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변경 촉구 건의문

공공용물의 명칭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등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끊임없는 역명칭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3월 15일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사원시선 “원곡역”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곡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각종 기업 그리고 상업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단근로자 등 유동인구가 풍부한 안산의 대표적 지역인 안산스마트허브단지(단원구 원시동 소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제명한 원곡역은 행정구역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동력이자 곤간인 안산시민의 상징도 반영되지 않은 명칭으로, 안산시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안산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4. 2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